



Edu World

세계 교육은 지금

[미국] AFT, 교육혁신기금 신설



왼쪽부터 교육혁신기금 아담 우르반스키 사무이사, 랜디 원가튼, 버바라 버드-베넷 위원장.

4월 28일 미국교원연맹(AFT)은 AFT 소속 전국 교원 단체들의 과감한 공교육 개혁방안 개발 및 추진을 돕고자 최초로 교원단체가 주도하고 민간재단이 후원하는 보조금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AFT 교육혁신기금(Innovation Fund)은 사상 최초로 미국 전역의 교원단체가 개혁방안을 주도하여 기획하고, 재정 대부분을 미국의 4대 민간 자선단체가 후원하는 프로그램이다. 1차 보조금으로 사용될 2백8십만 달러는 알파벳 순으로 엘리&이디스 브로드(Eli and Edythe Broad) 재단, 포드(Ford) 재단, 빌&멜린다 게이트(Bill & Melinda Gates) 재단, 찰스 스투어트 모트(Charles Stewart Mott) 재단 그리고 AFT가 이전에 발표한 재정지원금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랜디 원가튼(Randi Weingarten) AFT 회장은 기금출시 후 후원재단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교원단체들은 AFT 교육혁신기금을 통해 좁은 틀에서 벗어나 혁신적이고 지속적인 공교육 강화 방안을 고안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금 신청단체가 이번 기회를 통해 기존의 일관된 틀을 벗어나 좀 더 크게, 좀 더 대담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며 "미국에서 가장 고명한 민간재단들이 나서서 교원단체 주도의 새로운 개혁정책을 후원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전역의 AFT 소속 교원단체들은 2009-2010학년도 가을학기부터 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단체가 주도하는 협업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개혁 사업이 인정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단체가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교원평가, 열악한 학교의 우수교사 확보 등에 대한 독창적인 방안 및 기타 교원의 자질에 대한 혁신적인 방안 고안

> 교사들의 차별화된 역할, 책임 및 보상을 위한 새로운 보수체계

> 학생들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외적인 요인들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해결방안

지난 4월 28일 첫 공식회의를 가진 교육혁신기금 자문위원회는 저명한 교육자, 민권 운동가, 벤처 캐피탈 경영자 및 학자 등 총 16명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버바라 버드-베넷(Barbara Byrd-Bennett) 위원장은 클리블랜드 자치 교육구 CEO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디트로이트 지역 공립학교의 지도 및 책임성 총 감사를 맡고 있다. 교육혁신기금의 사무이사는 AFT 부회장, 로체스터(뉴욕) 교원단체 회장이자 Teacher Union Reform Network(TURN) 창립이사인 아담 우르반스키(Adam Urbanski)가 맡았다.

버드-베넷 위원장은 "AFT 교육혁신기금은 다음 세대를 위한 AFT의 끊임없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를 계기로 교사들은 개혁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공적인 교육혁신 방안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곳에도 응용되어 수십만 명의 아이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Eli and Edythe Broad 재단의 창립자 엘리 브로드(Eli Broad)는 "매일매일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얼굴을 대하며 교육계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들과 그들을 대표하는 교원단체는 학생과 교사 모두를 위한 혁신적이고 광범위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재단은 교사들이 다양한 교육혁신 방안을 만들고 그것들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있어 측정가능하고 획기적이고 교육구 전체에 있어 유의미한 향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AFT의 주도적인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라며 교육혁신기금의 목적을 칭찬했다.

Ford 재단 역시 교육혁신기금에 기여하게 되어 기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니 옥스(Jeanne Oakes) Ford 재단의 교육 및 장학금 담당이사는 "열악한 환경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 등 집단적인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아이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교사들은 교육혁신기금을 통해 교육개혁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Bill and Melinda Gates 재단의 교육담당 이사는 교육혁신기금의 잠재성에 대해 언급했다.

비키 L. 필립스(Vicki L. Phillips) 이사는 "우리 재단은 저소득 및 소수인종 가정의 아이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목적을 둔 다양한 기관들과 손잡고 더 많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모든 아이들, 그 중에서도 가난한 학생들이 매해 효과적인 교사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AFT 교육혁신기금을 통해 교사들은 전국 표준화력기준, 획기적이며 확실한 근거에 기반한 교사 효율성 평가적용, 차별화된 급여 및 학교별 교사 채용계약 등 과감한 개혁의 최전선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Charles Stewart Mott 재단은 교육혁신기금의 잠재성 때문에 AFT를 파트너로 선택했다고 말했다.

모린 스미스(Maureen Smyth) Mott 재단 프로그램 및 커뮤니케이션 부사장은 "오래전부터 Mott 재단은 가정, 지역사회, 국가의 성공을 위한 초석으로서 교육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왔습니다. 교육혁신기금은 교육개혁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고 학교와 지역사회 간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낼 것입니다"고 말했다.

전체 자문위원 리스트, 기금 소개, 신청 정보 및 기타 자료는 교육혁신기금 공식 웹사이트(<http://aft.org/innovate/index.htm>)에서 이용가능하다.

(출처 : AFT 웹사이트)

[남미] 라틴아메리카 지역 교육 상황



코리엔테스 주에 위치한 학교의 텅 빈 교실에 앉아 있는 아이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라틴아메리카의 교원단체들은 양질의 교육과 관련한 어려움을 극복하기는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및 브라질의 교원단체들은 교육예산에서부터 교사의 권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교사들이 교육기준의 미달과 터무니없이 낮은 교원보수 문제에 초점을 맞춰 16개 주에서 순차적인 파업이 일어나고 있다.

공립학교 교사인 세실리아 마르티네즈(Cecilia Martinez)는 3월 17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의 시위에서 "예산은 삭감되고, 학교 내 시설은 정비되지 않았으며, 보수가 너무 낮아 교사가 충분하지 않고, 공립학교는 문을 닫고 있다. 교육은 진정한 기본권"이라고 말했다.

지금의 위기를 촉발시킨 교육부 투자 부족은 아르헨티나 동북부에 위치한 코리엔테스(Corrientes) 주의 황량한 교실을 보여주는 아르헨티나 교원단체 CTERA의 입수 사진에 명백히 드러난다.

코리엔테스 시의 펠리스 마리아 고메즈 학교에서 학생들이 텅 빈 교실의 바닥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

한편 콜롬비아의 교원단체인 FECODE는 양질의 공교육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FECODE는 콜롬비아 교육상황에 대한 심층 분석 자료를 발간하였으며, "교육을 기본권이 아닌 상품으로 여기는" 민영화에 찬성하는 정부의 개혁에 맞서고 있다.

콜롬비아의 초등교육은 표면상으로는 무상이나, 실제로는 극소수의 어린이에게만 한정되며, 교육과 관련하여 아급야급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정의 어린이들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민영기관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추세는 학생들과 교사들을 모두 결과 중심의 시스템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의해 전적으로 판단되는 교사들의 경우, '시험을 위한 수업(the-teaching-to-the-test)'이 불가피해진다.

교실 밖에서 교사들은 더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정부 발표에 의하면, 콜롬비아에서 살해된 과반수 이상의 교사들은 교사였다.

2월 한 달만 해도, 의도적인 공격으로 인해 2명의 교사가 목숨을 잃었으며 다른 1명은 중상을 입었다. FECODE는 교사 안전의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브라질 교원단체인 CNTE가 임시교사 계약이 양질의 교육에 대한 위협이라며 맞서고 있다.

브라질 교육에 관한 최근 조사에서는 브라질 국민 중 5분의 1은 교사에 대한 낮은 급여 및 동기부여가 양질의 브라질 교육에 대한 주요 장애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국민들의 41%는 자국의 교육 체계가 양호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로베르토 프랭클린 레이우(Roberto Franklin Leao) CNTE 회장은 "교육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더 환층, 또한 더 신속하게 개선되어야 한다. 보다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엘 웹사이트)

[네팔] 제2회 네팔교원단체연합 TUN 총회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국가에서, 모든 지역에서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이를 위한 양질의 공교육에 대한 투자가 회복의 열쇠이며, 빈곤을 타파할 열쇠이자 민주주의 발전의 열쇠라는 것을 달성하고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사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 EI(Education International)의 프레드 반 튀벤(Fred van Leeuwen) 사무총장이 4월 21일 제2회 네팔교원단체연합 TUN 총회에서 전달한 메시지다.

TUN은 교직원과 네팔 공공기관 간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1년에 설립됐다. 이 단체는 대부분 네팔의 EI 회원단체인 네팔전국교원협회 NNTA와 네팔교원협회 NTA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 교직원의 70% 이상을 대변하고 있다.

500여명의 대의원들은 초만원의 교실, 엄청난 중퇴율과 공교육-사교육 간의 격차 심화 등 네팔의 교육체계가 직면하고 있는 절박한 과제들을 다뤘다.

학교관리를 지역공동체로 이관하자는 세계은행 등 국제공여공동체와 네팔정부 간 최근 합의는 강력한 저항에 맞닥뜨렸다. TUN은 이러한 사태가 무자격 보조 교사의 유입과 교사의 계약 및 고용조건 악화를 가져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퇴임을 앞둔 케샤브 프라사드 바타라이(Keshav Prasad Bhattarai) TUN 회장은 64,000명의 교사를 시급히 양성하고 채용해야 한다면서, 총회에 참석한 정부 대표 및 정당지도자들을 대상으로 TUN은 정의행위에 의탁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교육의 질은 극심한 곤경에 처해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 교실이 300명 이상의 학생으로 복닥대는 벽지지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총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EI 사무총장은 네팔정부에 모든 어린이가 교육을 받을 권리는 양질의 교육에 대한 권리이며 유자격 교사에 대한 권리임을 상기시켰다.

그는 모든 이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부족함에 따라, 네팔이 자국 교육목표 달성을 지원하겠다는 국제공동체의 공약에 계속 의존하게 될 것임을 EI가 전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중기구의의 접촉을 통해 우리는 네팔 및 여타 저소득 국가가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를 줄이고, 해당국의 경제 회복을 원조하며, 새천년개발계획(Millennium Development Goal)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추가 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 튀벤 사무총장은 또한 과거 네팔의 혼란에 대해 "우리는 네팔 정부가 근로기준의 골자를 무시하고 교원의 단체구축 및 교섭권을 부정할 때마다 여러 차례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우리는 폭력과 압력의 희생자로 목숨을 잃은 교사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하지 만 이는 이미 지나간 일이다. 이제 우리는 미래를 지향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는 민주적이며 변형하는 사회를 건설함에 있어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출처 : EI 웹사이트)

[독일] 독일교원단체 GEW 전국총회

4월 25-28일간 뉘른베르크에서 개최된 독일교육단체 GEW의 전국 총회의 연설에서 울리히 쏰(Ulrich Thone) GEW 회장은 보다 나은 고용조건과 양질의 교육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말했다.

임기 4년의 회장직에 재선임된 쏰(Thone) 회장은 국가 교육예산을 현재 국내총생산의 5%에서 7%로, 430억 유로 증액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이 증액은 더 많은 교육 지원과 교육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액수이다.

총회 연설에서, 급변 가을에 있을 수상 선거의 사회민주당(SPD) 후보이자 현 외교장관인 프랑크-발터 슈타인 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는 교육에 대한 권리의 달성이 사회민주당의 우선목표라고 말했다.

"충분한 학교 건립과 교직에 필요한 예산을 제공하지 않고 (...)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 수십 억 유로를 할당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가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고 공공 부문, 특히 교육에 대한 투자 증대를 강조했다. 미카엘 쏰머(Michael Sommer) 독일 노동조합연맹(DGB) 의장 역시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또한 GEW가 회원 수의 감소를 멈추는데 성공한 극소수의 독일조합 중 하나가 된 것을 축하했다. 2006년 이래 GEW 회원 수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

약 500명의 대의원과 30여 명의 국제 초청인사들이 GEW 총회에 참석했다.

프레드 반 튀벤 EI 사무총장은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한 교육 예산의 감축에 반대하는 투쟁을 요구했다. 반 튀벤 사무총장은 지금은 교육부문의 지출을 감축할 시기 가 아니라 오히려 동 부문의 투자를 늘려야 한다면서

"모든 이를 위한 양질의 교육은 모든 국가의 경제 회복을 위한 열쇠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동유럽 신흥경제국가의 수백만 국민들이 빈곤으로 다시 내몰릴 경우, 이는 사회적 재난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 튀벤 사무총장은 "우리는 문제의 일부가 아니라 해결책의 일부"라고 마무리 지었다.

(출처 : EI 웹사이트)

[EI] 학교리더십 세미나

헬싱키에서 열린 EI 학교리더십(school leadership)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양질의 교육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교장과 기타 학교지도자의 주요역할에 더 많은 관심을 촉구했다.

5월 6-8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양질의 교육을 위한 양질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학교리더십 세미나가 열렸다. 이 행사는 핀란드의 교원단체 OAJ가 주관했다.

세미나는 모니크 푸이유(Monique Fouilloux) EI 부 사무총장의 개회사로 시작했다. 푸이유 부사무총장은 학교리더십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이 시간에 대한 EI 사업은 2004/2007 총회 결의문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이 세미나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05년 세미나, 영국 버밍햄에서 열린 2007 세미나에 이은 3번째 학교리더십 세미나이다.

앤 콜마이넨(Anne Kolehmainen) OAJ 부회장은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헬싱키 그리고 핀란드에 온 것을 환영했다. 앤 부회장은 우수한 교육을 이뤄내는 데 있어 교사 및 교장의 전문적 기술이 중요하며, 교육과 관련한 모든 결정과정에서 교원단체 및 교장단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세미나는 헤나 버쿠넨(Henna Virkkunen) 핀란드 교육부 장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버쿠넨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핀란드의 교육제도는 무상교육, 급식, 통학을 포함해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이루어진다면서, 교사들은 고학력자이며(최소 자격요건이 석사)이며 자율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합쳐져서 핀란드가 OECD의 PISA 결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에 대한 설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요카 알라바(Jukka Alava) 핀란드 이베스킬레(Jyväskylä) 대학교 교육리더십연구원장은 양질의 교육 달성에 있어 학교리더십의 역할을 강조하는 기초연설을 발표했다. 요카 원장은 교육리더십 및 협력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그는 학교에는 단 한명의 지도자보다는 교사, 보조직원, 학생,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지도자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데니스 시볼로(Dennis Sinyolo) EI 교육 및 고용국 조정관인 개혁무성 요구, 성과경쟁 및 평가, 성과급, 경쟁, 국제평가, HIV/AIDS, 감소하는 자원, 학교안전문제 등 교육경쟁과 학교리더십 부문의 현 상황, 트렌드, 발전과 난제들에 초점을 맞췄다.

프랑스, 미국, 대만, 아일랜드, 남아공의 보고서는 리더십에 대한 자국의 현재 이슈들을 조망했다. 이들 보고서에는 (프랑스) 학교리더십의 계속적인 발전, (미국) 전국적 자격표준화와 차별화된 보수의 마련, (대만) 학교지도자의 선출, (아일랜드) 경제 위기의 여파와 중등학교 교장의 납세비율, (남아공) 새로운 ANC(아프리카 민족회의) 정부에 의한 학교개혁이 포함됐다.

2개의 패널토의도 진행됐다. 첫 번째 패널토의는 학교리더십 정책과 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에 초점을 맞췄다. 린 말라즈(Lynn Marlaaz) 미국 NEA 선임 정책 애널리스트는 학교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원단체의 역할에 대해, 존 뱅스(John Bangs) 영국 NUT 사무차장보는 연구를 통한 학교리더십 정책과 실천의 향상에 대해, 아리 포카(Ari Pokka) 핀란드 교장협회장은 참여적 리더십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두 번째 패널토의는 학교리더십의 난제에 대한 전략에 초점을 맞췄다. 핀란드 교장협회 부회장 요카 쿠이피넨(Jukka Kuittinen) 교장은 핀란드의 평가제도에 대해, 초등학교 교장회 회장이자, 이스라엘 교원단체 ITU 위원회의 위원인 사라 이스라엘리(Sara Israeli)는 학교리더십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 앤더스 발르(Anders Balle) 덴마크 교원단체 DLF 학교지도자조합 회장은 학교자율화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3개의 워킹그룹도 동시에 진행됐다. 첫 번째 그룹은 학교리더십의 개발을 다루면서, 학교지도자는 반드시 숙련된 교사여야 하며, 교사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교사로서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학교지도자는 해당분야의 경험, 경영자로서의 능력, 훈련연수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그룹은 안전한 학교환경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이 그룹은 학생, 교사, 기타 교육종사자들을 위해 자연재해 및 폭력 등에 있어 안전이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세 번째 그룹은 민주적이고 질 높은 학교리더십의 발전을 위한 교원단체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이 그룹은 EI와 교원단체를 대상으로 교육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회원들을 위한 연수/리더십 프로그램을 조직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활동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출처 : EI 웹사이트)